



금주의 말씀

누가복음8장42-48절



변의석 목사
영림침례교회 담임

예수님이 급히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가던 중이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게 되었고 고침 받는 은혜를 입게 된 이야기이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다. 저마다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 받기를 원하여 밀고 당겼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예

수님의 능력이 몸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이것을 아무도 몰랐다. 예수님만 알았다. 예수님이 누군가하고 돌아보았더니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었드렸다. 그리고 자기는 혈루병을 앓는 여자인데 예수님 몸에 손이 닿는 순간 자기 병이 나았다고 간증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 43절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혈루병은 여성 병으로 만성출혈병이다. 혈관조직이 약하여 혈관 틈으로 피가 나오는 병이다. 피가 흘러나와 결국 악성 빈혈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 여인은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보고 안되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그날 예수님께 나온 것 같다. 그리고 손을 들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 몸의 병이 고침 받았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 하신대”. 이 여인이 고침 받은 것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간 것이다.

첫 번째, 예수님의 생명이 혈루병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다.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다. 레 11장에 보면 나병 환자, 고름흘리는자, 피를 흘리는자, 소경을 부정한 병이라고 말한다. 아들이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에 미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병 즉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사람이었다. 이 여인은 지금 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 전염병이다. 치료는커녕 사람들과 멀리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대단한 결심을 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급히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가는 중이었다. 제자들과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뒤따르고 있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갔다

도 있다. 오늘은 아닌 것 같다. 다른 날 기회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들의 틈을 뚫고 나아가 얼굴을 가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마다 보여준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하나는 불쌍히 여긴 것이다. 마14: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마1: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가진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눅7장11절) 나인 성에서 독자 아들을 잃고 슬피우는 어머니가 있었다.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눅8장26절)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사람 무덤가에 쇠고랑을 채워서 날마다 소리치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서 그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 온전하게 되었다.

두 번째, 터치의 믿음은 예수님 생명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흘렀던 또 하나의 요소가 있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간 이유를 여인의 믿음에 돌리고 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과연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어떤 믿음을 보았을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우선 믿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실이다. 여인이 했던 행동 중 계속 강조되는 말이 있다. 그것은 “만저다. 만저다”라는 말이다. 44절, 45절, 46절, 47절에 네 번이나 나온다. 여인은 그날

무엇을 만짐 것일까? 44절에 보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되어 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정보를 알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께 터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나의 모든 정보가 즉 나의 아픔과 고통, 고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신다. 요즘에는 챗GPT에 어떤 정보를 물어보면 몇 초 안에 정보가 나온다. 예수님은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신 분이시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하면 주님은 나의 모든 정보를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하는 은혜를 입기를 바란다. 혈루병 여인이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고치십니다.”란 고백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 것이다. 내 병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선물 보따리”라는 믿음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흐르게 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간다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하며 살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터치의 믿음으로 만짐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생명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



홍기범 교수
- 한국창조과학회 공주전남지부

원)과 <다윈도 모르는 진화론>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해보면, 1m 두께의 지층이 쌓이는데, 1700년~10만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지층이 생성되는데 걸린 시간은 수 시간에 불과하다. 당시 이 빠른 속도의 흙탕물은 해저 전신 케이בל을 절단했는데, 케이בל을 절단할만한 속도는 시속 100km라고 한다.

이 사건은 “강물에 실려 온 자갈이나 모래, 진흙 등이 강의 하류나 흐름이 느린 곳에 쌓인다”(교육부 공식 블로그/지난 호에 언급)는 설명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층이 생성되었음을 보여준다.

19일에 형성된 지층이 드러난 것이다. 위의 두 격변적 사건의 관찰 결과가 진화론적 지질학 이론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콜로라도 대학에서 수행한 지층 생성 실험 결과도 관찰 결과를 지지한다. 1994년에는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큰 수조(水槽: flume)를 만들어 실험을 한 결과, 지층은 오랜 세월을 걸쳐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가면서 입자의 크기 별로 분리되어 층이 만들어 지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학교 교과서에는 여전히 오랜 세

역사전쟁(7)

지난 호에서 실렸던 문단 하나를 다시 한번 언급해보자.

“지질학자들이 제시하는 지층 생성 속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층 생성 속도는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지 않는다. 아니 할 수가 없다. 너무 느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가 계산을 해보았다. 지층 생성 속도는 측정의 어려서가 아니라 계산에 의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

진화론적 지질학에 의하면 오늘날에도 지층이 형성되어야 하며, 또한 화석화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오늘날에도 지층이 생성되고 있을까?

1929년 캐나다 북동부 뉴펀들랜드 지역의 그랜드뱅크스에서 발생한 7.2도의 지진에 의해 쓰나미가 발생하여 모래와 진흙이 섞인 흙탕물이 바다로 빠른 속도로 흘러 들어가 1m 이상의 지층이 형성되었다. <종의 기

원> 1980년 5월 18일 미국 워싱턴 주의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폭발하였다. 화산 폭발에 의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고 밀도가 높은 흙탕물이 산 아래로 빠르게 흘러내리면서 산 아래 평지에 7.5m 높이의 지층이 쌓였는데, 다섯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이 때 흙탕물의 속도가 시속 100km 이상이었다. 이 흙탕물은 화산 용어로 저탁류(低濁流)라 부른다.

이에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가면서 또는 화산재가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서 지층이 쌓였는데, 이 때 쌓인 지층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곳이 183m, 가장 얇은 곳은 45m이었다.

그림은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 후, 1980년 5월 18일, 1980년 6월 12일, 1982년 3월

월에 걸쳐서 지층이 생성된다는 동일과정설적 지질학이 사실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다.



▲ 1980년 5월18일 미국 워싱턴 주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에 의한 지층 형성: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건물 매매·임대

광고 문의

T.062) 367-9109 F.062) 367-9108

※ 예배당, 기도원 등 교회 관련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광고란입니다.



교회 건물 매매

- 위치: 광산구 수원동
- 면적: 대지 656㎡ 연건평 1505㎡ 지하1층-주차장 492㎡ 지상1층-본당 376㎡ 2층-교육관 385㎡ 3층-식당 251㎡
- 금액: 상담후 결정

010-3602-3228

교회 임대

- 위치: 광산구 도산동 (송정서초 근처) 2층
- 면적: 50평(예배당, 목양실, 유아실, 주방, 식당) ※깨끗하게 관리모텔링
- 금액: 보증금 1,000만원 50만원 ※시설,비품 상담 후 결정

010-9212-1474/010-4102-3092

교회 매매

- 위치: 남구 진월동 대주2차아파트 상가2층
- 면적: 34.5평 (예배당, 주방겸 교육관)
- 금액: 1억2천만원(대출 3천2백만원포함) 성물집기포함, 가격조정가능 ※리모델링, 교통, 주차편리

010-2200-8905

교회 건물 매매

- 위치: 광산구 신창로(신창지구)
- 면적: 대지 67평 건평 80평 1층-예배당 40평 2층-사택 및 식당 40평 부속건물-중 이층 유아실, 방습실
- 금액: 7억 5천만원(대출 2억5천5백만원포함) ※리모델링(천장 환풍기 및 팬백)

010-9661-9099

교회매매

- 위치: 북구 오지동 금호대신상가 2층
- 면적: 30평 (예배당 / 주방겸 카페)
- 금액: 1억 5백만원 ※리모델링 됨 ※교회비품 모두 무료 ※주차 편리

010-2606-6529/010-6811-0656

교회 매매

- 위치: 전남 무안군 일로읍 (도청까지 차로 5분거리)
- 면적: 대지 114평 교회 40평 사택 20평 식당, 창고, 화장실,
- 금액: 1억 5천만원 ※성물 외 집기포함

010-4630-0091

다가구 원룸매매

- 위치: 북구 두암동(588-1) 홈플러스 신광중부근 버스정류장3분거리
- 면적: 대지 45.82평 연68.47평 1층 주차장, 2~4층 원룸 12개
- 금액: 5억 5천만원(보6백50만/월3백만포함) ※대로변 교통편리, 건물상태좋음

010-2217-2427

교회당 임대

- 위치: 북구 두암동
- 면적: 30평(3층)
- 금액: 보증금 5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품비 있음

062-953-1377

교회당 임대

- 위치: 서구 금호동(금호지구대 근처)
- 면적: 31평(3층)내부시설 깨끗하게 리모델링
- 금액: 보증금 1,000만원 월60만원 ※교회비품 상담후 결정

010-8615-2539

교회당 임대

- 위치: 남구 대남대로 289-1
- 면적: 47평 예배당(반지하) 방2개, 주방, 화장실(1층) 교회-유아실, 목회사무실 있음
- 금액: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010-4149-8300